

# 관상조류 사육방법 (5)

## 방 예 식

〈한국 관상조류 연구원장〉

야생조류는 원래 체질이 강하고 또한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금류와 같이 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러나 불결 전염 보균조에 의해서 가끔 치료하지 않을 수 없는 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일단 발생하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수가 있다. 특히 꾀과조류는 성질이 까다롭고 거칠므로 병의 치료가 매우 곤란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항상 이상적인 위생관리와 병에 대한 조기발견을 염두에 두고 사육하여 간다면 치명적인 질병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된다. 흔히 관상조류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닭에서 병이 전염된다고 될 수록 양계단지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양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같이 키우고 싶어도 야생조류에 무서운 보균이 있거나 앓을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험에 의해서 예방만 철저히 하면 모든 것이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 1. 위생상의 주의

#### (1) 전염경로를 살펴보자면

① 공기감염 ② 경구(經口)감염 ③ 알(卵)로 인한 감염 ④ 보균보독조(保菌保毒鳥)에 의한 감염 ⑤ 외인, 가축, 들새, 곤충으로의 감염 ⑥ 병조가 있던곳의 흙, 똥, 기구, 사료

등으로 인한 것등의 조건을 들 수 있겠다.

#### (2) 치료보다 평소의 위생에 치중

① 여름과 겨울의 방서와 방한 ②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 ③ 매일의 건강관찰 ④ 질병의 예방주사와 접종 ⑤ 발병지역의 출입금지 ⑥ 병조의 조기발견과 그 대책 ⑦ 수입조(輸入鳥)의 장기간의 격리사육등 평소의 예방관리가 바람직하며,

#### (3) 병조의 공통된 증상을 살펴보면

① 식욕의 감퇴 ② 날개죽지를 늘이고 줄고 있으며 ③ 똥이 무르거나 실사 또는 잡물(雜物)에 섞여 있으며 ④ 활동력이 저조하며 ⑤ 입과 코안에 액체가 비치며 ⑥ 깃털이 꺼칠꺼칠하고 ⑦ 산란조는 산란능력이 저하된다.

## 2. 일반 질병

#### (1) 소낭 카다르와 식체

① 원인……소낭카다르는 대개 어떠한 질병과 연유되어 잘 걸리나 조령(鳥齡)과 관계없이 여름철에 심하다. 본 병은 소낭에 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팽만되어 그 부담이 커짐으로 소낭에 체증을 일으킨다.

② 치료와 예방……소낭이 무르고 내용물에 액체와 가스가 차 있을 때는 소낭을 주물러 주고 토하도록 한다. 토해내지 못할 때는 불, 소다, 들기름 등을 조금씩 넣어주고 주물러

토해 내도록 하고 다음에 잠시 절식시킨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토해내지 못할 때에는 절개하여 내용물을 꺼낸 다음 맑은 물로 씻고 꿰매준다. 예방법으로는 비타민 B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과 청채를 많이 넣어주는 것이 유효하다.

#### (2) 하리병(下痢病)

① 원인……대부분의 설사는 사료의 부적합, 식재, 기생충의 독소 중독성 등등이 주원인이다. 결국 설사는 장에 염증이 생겨 소위 위장 카다르로 된 때의 한 증상이며 장에 염증을 만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장의 점막이 붓거나 분비에 이상이 있거나 점막이 떨어지거나 또는 충혈 출혈등을 일으키므로 설사를 하게 된다.

② 증상……설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좀 무른똥, 물과 같이 묽은똥, 점액똥, 자라고기같은 똥, 피섞인똥 등이 있고 색깔에 있어서도 녹색, 황색, 갈색, 회갈색, 흑녹색 등 여러가지다. 그림으로 다같이 말할 수는 없으나 단순한 장카다르에 의한 설사똥이면 일반적으로 희석한 것 같으며 거기에 약간 황백색 또는 회백색을 섞은 설사다. 그러나 전염성과 중독성으로 일어나는 설사는 대부분 녹색 또는 황녹색이거나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섞여있고 어떤 것은 피를 섞은 설사똥이다. 한편 정신적으로는 식욕이 줄어들고 거동이 우울하여지며 원기없이 서서히 눈을 감고 조는 것도 나온다. 만성으로 된 것은 사료는 먹으나 소화가 잘 안되어 영양이 떨어진다.

③ 예방과 치료……이 병의 주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고 합병증이나 2차 감염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목탄말, 다나톨, 테라마이신 등을 복용하면 되나, 심할 경우는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합제(人體用)한병을 증류수 20cc에 타서 한 마리에 1일 1cc씩 3일간 근육주사한다. 소장에 단단한 식체가 생기면 소다 5g, 당밀 15cc, 물 50cc에 타서 15스푼으로 하여 스포이드나 주사기로 모이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20~30분쯤 후에 거꾸로 매달아 굳어진 모이주머니를 주물러 조금이라도 토하게 된다. 만약 곤란스러우면 소낭절개 수

술을 하여도 좋다. 평상시에 오레오마이신이나 테라마이신의 사료첨가제를 미량 급여하여 내장의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저항력을 가지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

#### (4) 난비증(卵秘症)

① 원인……초산(初産)때에 알이 너무 커서 수란관에서 알이 나오지 못하거나 막힐 때 수란관의 분비물이 부족하거나 분비가 정지되면 점막이 말라서 수란관 하부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 올라 알이 잘나오지 않으므로 억지로 알을 낳으려면 수란관 안벽이 배설강(排泄腔)밖에 튀어나온다. 이것이 수란관탈출증이다. 그 밖의 장염후의 변비증이 오래 계속되거나 중독증에 의하여 수란관이 마비될 때에도 이병이 걸린다.

② 증상……병조는 자주 알을 낳으려고 산란장에 들어가나 산란치 못하고 거동이 불안정하여진다. 병세가 심해지면 활발치 못하고 깃털을 세우며 한곳에 우두커니 서 있게 된다.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꿈쩍을 못하고 보행이 곤란하여진다.

③ 치료……조용히 병조를 붙잡아 꿩인 물위에 향문을 더운 김으로서 배설강의 근육을 부드럽게 한 다음 붓에 기름을 묻혀서 산란도(産卵道)에 넣고 부드럽게 알을 비벼서 끌어낸다. 수란관 탈출증이 발생하면 알을 꺼낸 후에 환부에 냉수를 끼얹어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동시에 부은데가 수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세린을 발라두면 수일내 회복이 된다. 만약 알이 너무 크거나 수축성이 너무 없어서 불가능할 때는 극단적으로 할 수 없이 아랫배에 손을 대고 알을 누르는 듯 하면서 향문으로 핀셋과 같은 것으로 껍질을 깨어 빼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때도 아랫배를 잘 맛사지하면 자연히 껍질이 나오게 되는 수도 있다. 일단 자극을 많이 준만큼 몇 일간 휴산하게 된다.

#### (5) 변비증(便秘症)

변비증은 평종류에는 극히 보기 드문 병이다. 원인은 녹이(綠餌) 음수 섭취결핍의 부족

으로 발생한다.

② **치료**……대개 설사에 대한 처치방법에 유효한 경우가 많다. 하제(下劑)는 어느 경우에라도 적절한 방법의 하나이다. 하제에는 피마자유, 황산소다, 황산마그네슘 등이 있다.

### (6) 미성장염(微性腸炎)

① **원인**……곰팡이에 의한 소화기병이며 특히 중추(中雛)에 걸리기 쉽고 년중 5~7 월경에 비가 자주오고 고온과 고습으로 인하여 부패될 시기에 많이 발생된다. 「아스퍼질러스」속의 곰팡이가 부패된 사료속을 육추중의 어린 새끼나 중추가 먹으면 급성장염을 일으킨다.

② **증세**……이 병의 증세는 콕시듐병과 거의 비슷하면서 원기가 없고 식욕이 없으며 우두키니 서서 눈을 감고 졸면서 황갈색의 점액똥과 핏똥을 누어서 항문주위가 지저분하게 된다. 또한 흰 빛깔의 점액똥, 흰점액똥에 피가 섞여 고기덩어리와 같은 변을 내는 것도 있다. 이 병에 걸리면 1주일 정도면 죽는 것이 많다. 콕시듐과 구별법은 현미경으로 똥검사를 하여 「오시스트」가 나오면 콕시듐이고 없으면 미성장염이다. 이것도 같은 유독곰팡이에 의하여 기관지의 점막, 폐의 기낭 등에 침입하여 폐염을 발생시킨다.

③ **예방과 치료**……예방으로서 급사의 습기를 막고 채광을 많이 시키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다음 사료보관을 잘하여 부패를 막도록 하고 밀기울 등이 녹색을 띄고 냄새가 변한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치료법은 신통스러운 것이 없으나 황산마그네슘 3~4숟갈을 더운 물에 녹여 생후 20~30일 새끼 10마리분으로 하여 스포이드로 먹인다. 황산마그네슘으로 창자 내용물을 배제한 다음에는 황산동 한숟갈을 음수 1되에 녹여 약 1주일 동안 계속 먹인다.

### (7) 구루병(佝僂病)

① **원인**……어린새끼나 중추에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사료중에 칼슘분이 부족할때, 또 부족하지 않더라도 인(P)과 균형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비타민 A, B, D의 급여량

이 부족할 때 또는 미량요소 즉 마그네슘, 망간, 불소(弗素)가 부족할 때, 그의 단백질이 부족해서 발육불량이 되었거나 자외선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관리면에 있어서 환기불량, 운동부족 과도한 건조등도 원인이 된다.

③ **증세**……뼈 조직의 신진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김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뼈의 질이 아주 연하고 무르게 되어 뼈의 모양이 이상해져서 기형을 나타내며 특히 흉골이나 다리뼈가 굽는 수가 많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본다면 식욕이 부진해져서 살이 마른다. 그리고 장카다르에 걸려서 설사를 하는 것도 있고 빈혈이 일어나서 점막이 창백색으로 변하는 증세를 나타낸다.

② **예방과 치료**……육추의 사료배합을 과학적으로 하되 치료로서 비타민 A, D가 다량함유된 간유를 먹이고 녹사료를 많이 먹여야 한다. 그리고 비타민 B<sub>2</sub>의 급여를 충분히 고려하되 누에번데기가 좋으며 위생적인 부식토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다.

### (8) 각약증(脚弱症)

① **원인**……이 병은 영양분의 결핍으로 다리가 마비되어 서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페로시스, 구루병, 린바넥크의 한 증세로서 나타나는 것이 일괄해서 원인이 된다. 대개 구루병의 한 증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③ **증세**……새들이 기립불능 상태이거나 불안한 자세를 일괄해서 각약증이라고 부른다. 「페로시스」란 무릎관절이 종대되는 것이 특징으로 건(腱)이 벗겨지는 증세를 말한다. 「린바넥크」란 구루병하고는 전혀 원인이 다르지만 기립불능이 된다. 특징있는 증세로는 목을 옆 또는 뒤로 구부리고 피로운 자세로 빙빙 돈다. 그 원인은 마비를 결드리는 전염병이나 기생충이 체내에서 독소를 분비했을 때나 식중독일 경우이다.

② **예방과 치료**……각약병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린바넥크」는 드물게 나타나는 병이고 년중 12회의 기생충의 구제나 신선하고 잘 건조보관된 모이를 주므로써 막을 수

있고 「페로시스」병의 발병원인을 알아두면 이의 예방은 쉽게 인식하리라 믿는다.

### (9) 회충증(蛔蟲症)

① 원인……기생충중에 가장 많은 것이며 체장은 3~4치정도다. 배분에 섞여나오는 충란을 새가 먹게 되면 체내에서 부화되어 기생한다. 번식은 밖에서도 온도만 적합하면 부화되어 1년이상 생존하며 3~4개월이면 성충이 된다. 이런 알이 묻은 것을 먹으면 감염된다.

② 증세……소수 기생시는 외관상 거의 증세를 발견할 수 없으나 많을 때는 여러가지 병증을 나타낸다. 어린 새끼는 발육불량으로 쇠약해서 죽는다. 성조는 견디는 힘이 강하여 심하면 식욕에는 변화가 없으나 점점 야위고 깃털이 거칠고 엉성하면서 설사또는 액체똥을 누며 산란기 같으면 산란이 저하된다. 심하면 배분에 성충이 배출된다.

③ 예방과 치료……회충은 약하나 회충란은 추위에 대단히 강하여 일년간을 흙속에서 생존할 수 있으나 건조나 직사광선에는 약하므로 흙을 뒤집어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구충약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연간 2~3회 정도 구제하면 안전하다. 비타민 B<sub>2</sub>의 「비오친」의 급여는 기생충의 피해를 적게 한다고 한다. 특히 새끼들의 사육장 같으면 밀바닥이 철망이면 감염될 염려가 없다. 소독약은 크레졸비누액이나 울소레가 좋으며 끓인 물도 유효하다.

### (10) 촌충과 조충증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체장이 3치내외로 된 것이 제일 많다. 증상은 원기가 없고 설사를 하면서 체중이 감소된다. 말기에는 조충및 촌충의 독소관계로 다리를 절고 마비성의 중독증상을 나타낸다.

④ 예방과 치료……평조류에는 닭에 비해 삼분의 일 밖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구제약을 먹이면 된다. 구제및 치료약으로는 유비론, 페노다이아진, 가마라 등이 있다. 가마라로 성조 1마리에 1g을 교잡에 넣어 먹이면 효력이 있다.

### (11) 개취병(開嘴病)

닭, 칠면조, 야조, 평류 등에는 드물게 나타난다. 개취충이 기생하여 질식하여 죽는 병이다. 구미(歐美)에는 이충의 해가 크나 우리나라에는 아주 드물다.

② 증세……감염후 1~2주일은 증상이 나타난다. 병조는 입을 열고 “후유”하는 소리를 내고 기침을 계속한다. 기침을 할 때 목을 느끼고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동작을 되풀이한다. 또 점차 식욕을 잃고 쇠약해져서 죽거나 질식해서 죽는다. 새끼에는 피해가 있으나 성조에는 가별고 낮은 일이 많다.

③ 예방과 치료……사육장의 밀바닥을 철망으로 하면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치료는 밀폐한 상자에 병조를 넣어 상자의 면적 1평당 20g의 바륨, 안티몬, 다다레토의 가루를 뿌려 15~20분간 분말을 흡음(吸飲)하도록 한다.

### (12) 외부기생충

① 원인……외부기생충을 대별하여 보면 머리, 배, 항문주위의 부드러운 털이 있는 곳에 살면서 깃털 부리 피부비늘때 같은 것을 갉아 먹고 사는 이(蟪)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다음은 마디발동물의 거미류에 속하는 진드기(壁蟪)의 종류가 있다. 극히 작은 벌레로서 피를 빨아먹고 기생한다. 진드기는 밝은 곳이나 차거운 것을 싫어하므로 낮에는 문기둥 헛대등의 틈에 숨었다가 어두워지면 맹렬히 덩벼 피를 빨아먹는다. 봄과 가을에 번성하고 겨울에는 잠복해 있다. 어느 것이나 기생이 심하면 안정을 못하고 영양이 불량하여 저항력이 감퇴되며 산란조는 산란이 감소되고 새끼는 심하게 시달려서 쇠약하여 죽는다.

② 구제법……네구본 0.15%의 용액을 살포하면 된다. 진드기외의 기생충은 일체 살균된다. 그외 황산니코친 DDT, BHC 등이 있으나 유독성이니 주의를 요한다. 다음에 진드기는 보리짚을 깔았다가 꺼내어 소각하기를 5~6일간 반복하면 비교적 많이 기생하고 있더라도 완전히 구제할 수 있다. ■